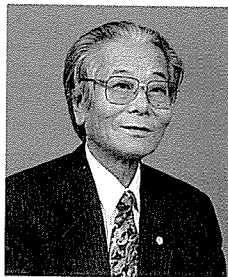


## 왜 과학기술계 직능대표는 전국구 의원에 못끼나요?

분야가 다른 제3자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계는 어떠한가.  
5월호부터는 과학분야가 아닌 타분야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과학기술의 현황과 과학기술계에 바라는 진솔한 제언을 싣는다.



洪性裕

〈소설가·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나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전혀 문외한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조금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에 이르기까지에는 다소의 까닭이 있다.

### 소설주인공을 과학자로

40년도 넘게, 그것도 주로 장편소설을 써 오면서 그 주인공들이 대체로 대학생이나 교수들, 기업인이나 사장족들, 건달들이나 기생족들만이 위주가 되어 있는 것에 스스로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주인공들이 나름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 오고, 걸어 가고 있기는 했어도 좀 더 진지하고 학구적인 인생의 길을 걷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갖고 싶어졌다. 바로 과학기술자들

을 주인공으로 하는 장편소설을 쓰고 싶어진 것이다.

어려서 「보이지 않는 비행기」란 소년물의 일본 공상과학소설을 읽어본 것이 과학관계 서적의 전부이고 보니, 새삼 과학자를 주인공으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모한 것이었다. 골똥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캄캄했고, 정글같은 숲 속에서 첫발을 어디로 향해 내딛어야 할까 그저 난감하기만 했었다.

그런 채로 다소의 인연이 있어 원자력발전소의 견학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영감(靈感) 아닌, 힌트를 얻어 그 주인공을 원자력 관련 과학기술자로 삼기로 했다. 그로부터 따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원자력에 관한 과학서적을 무턱대고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우리

책도 읽었지만 일본서적도 적지않게 읽었다.

그렇다고 쉽게 소설이 쓰여지는 것은 아니었다. 새삼 말할 것도 없이 소설이란 일반적인 과학서적과는 달리, 즐거기도 있어야 하고, 흥미도 있어야 하며, 감동도 있어야 한다. 따분한 서적 몇권을 읽었다고 해서 이야기거리나 즐거기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현장감을 갖고 모델이 될만한 과학기술자를 찾기 위해 요로와 교섭을 해서 영광원자력발전소와 고리, 울진, 월성발전소를 두루 돌아다녔다. 열번도 더 다녔다. 그 견학소감은 기행문 형식을 빌어 원자력관계 지면에 게재도 했다.

그 일문이 눈에 띄었던 것일까? 나의

대학 1년 후배가 되는 한국전력의 H 사장이 나를 초치하여 큰 향연까지 베풀어 주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꿈처럼 품고 있었던 원자력분야의 과학기술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쓰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말을 들은 H사장은 무릎을 치고 반기면서 한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해 주었다.

### 원자력문화재단 이사감투

그 약속이 까닭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후에도 몇 차례인가 더 원자력발전소를 찾았고 아직도 문외한인 내가 엉뚱하게도 '원자력문화재단'의 이사직까지 맡게 되었다.

덕분으로 한국과학저술인협회의 교수들 일행과 함께, 유럽과 일본의 원자력시설을 견학하는 기회까지 가졌었다. 한창 건설 중에 있는 일본의 '로카쇼무라'의 핵폐기물 재처리시설, 영국의 아름다운 해안도시 셀라필드의 「드리그」처분장, 프랑스의 셸부르 서북쪽 25km 지점의 「라망쉬」처분장과 「라아그」재처리장의 시찰 등이 그것이다.

그 시찰기는 바로 다른 과학잡지에 게재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해 여기서는 다시 언급치 않겠다. 다만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내가 구상해 온 소설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고, 그 까닭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과학기술분야라는 것이 너무 방대하고 광대해서 힘에 벅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 언저리에서 방황하는 동안 사계의 권위자들과도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 오늘의 한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어렵듯이나마 그 분위기를 짐작케는 되었다.

그 소감의 일단을 여기서 풀어 놓아도 망발이 되는 것이 아닌지 저어된다. 무릇, 과학기술은 현대 국제경쟁사회의 생존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개발은 미래의 경제발전 가능성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므로 통치권자나 당국은 강한 의지와 철학으로 이를 추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당국의 열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조금쯤 등한한 것이 아닌가 하고 여겨질 때가 있다. 그 비근한 예가 그 흔한 전국구 국회의원에 과학기술분야의 직능대표는 한 사람도 끼어있지 않다는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가 있다.

### 자연의 섭리 그르치지 말자

자연은 참으로 신비하다. 작은 꽃가루로부터 신비스러운 많은 과정을 거쳐 씨앗이 생기고 땅에 떨어져 싹이 트고, 큰 풀, 큰 나무로 자란다.

농부는 이러한 신비스러운 이치를 다는 알지를 못하면서도 부지런히 일을 하고 농사를 지어 삶을 영위해 나간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잘 모를 때에는 싹이 나오나 안나오나 미리 알아보기 위해 파보거나 뿌리를 건드려서도 안된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연이 스스로 잘 알고 저절로 키워주니 말이다. 때문에 자연의 섭리를 그르쳐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최근 당국은 과학기술분야에 의지와 의욕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비해 지나친 간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듯 하다. 과학기술개발도 나무가 자라듯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야

하므로 당국은 강한 의지와 철학을 지니고 과학기술개발의 연구환경만 조성해 주면 된다는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당국의 지나친 간섭이 배제된 자유로운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개발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반면 과학기술자들은 미래의 경제발전 가능성을 연구한다는 구실로 자칫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는 목소리도 또한 들린다. 미지의 무한한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다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일반 사회인들도 통치권자나 당국의 강한 의지와 철학을 믿고, 과학기술계의 책임있는 연구와 능력을 신뢰하는 풍토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환경보호에 대해서 한마디 소견을 덧붙이고 싶다.

우리는 양지바른 아름다운 산 밑에서 자연의 섭리를 따라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마시며 살던 때를 다 같이 그리워한다. 자연보호는 구호로만 말할 단계는 이미 지났고 사회, 정부 및 관련 과학기술자들은 모두 이와 관련된 노력을 각자 함께 기울여 이 절실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많이 쓰고 먹으면 쓰레기는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자연은 미처 이를 처리하지 못해 우리가 사는 자연환경은 병들어 간다.

때문에 자연환경보호의 첩경은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현대 문명과 함께 생성되는 최소한의 쓰레기는 완전히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외한의 제의나 의견이 부질없는 낚두리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㉞